



미래 낙농의 청사진을 보여준 여성낙농인 전문화교육

고향례 경기 화성 참조은목장



어느 누구에게나, 특히 여성 낙농인에게 있어 3박 4일의 여정은 모험에 이르는 교육의 일정이다. 폭염주의보를 연일 발표하는 무더위 속에 남편에게만 목장 일을 부여하고 이 교육을 택한 나에게도 분명 모험이었다.

첫째 날(7.27)

학창 시절이 생각난다. 학교 근처의 아이들이 지각을 맡아 놓고, 아니면 지각을 면하기 위해 험레벌떡 뛰어오고 하더니만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가까스로 교육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잠시 숨 돌릴 겨를

도 없이 진행된 교육은 약간의 쉬는 시간만 빼고는 계속 이뤄졌다. 저녁 식사는 야외에서 이루어졌는데 마치 영국 황실의 부인이 된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둘째 날(7.28)

잠자리가 바뀐 탓도 있고,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일상 생활에서 벗어난 해방감도 있고 기타 등등 모두들 지난밤은 뒤척이다 잠이 들었다. 하지만 습관이 무섭다고 하더니……. 새벽 5시를 전후로 다들 기상이다. 내가 속한 호실에는 각조에서 남은 조원들로 배정되어서 서먹함이 조금 심했던 것 같다. 아마도 내일쯤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를 챙겨 주리라는 것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된 교육은 오후 8시까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배우고자 하는 열의는 삼복더위 태양열보다 더 작열하였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외소득, 비용, 매출원가, 자본, 자산……. 용어들이 뇌를 압박해 올 때엔 거의 쥐가 날 지경이었다. 그래도 강사님들의 능력이었을까? 생소한 단어들이 들림에도 졸리지 않고 교육에 임할 수

있었다. 평가에 앞서 교육생의 부담감을 덜어주려 예상시험문제를 예고하여 시험을 치르게 해 나에게는 오히려 더 기억에 남았다.

저녁식사 후에는 일명 ‘번개모임’이 이루어졌다. 사전에 예고도 계획도 없이 진행된 번개모임에서의 반응 또한 뜨거웠다. 각자 자기 소개를 하고 여성 낙농인으로서 나아갈 길을 얘기하였다. 특히 전반기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 당한 여성 낙농인의 절규하는 듯한 울부짖음에는 가슴 언저리가 팍 막히는 듯한 울컥함이 있기도 했다. 늦은밤 같이 시청한 인기드라마도 혼자 볼 때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들의 밤낮은 빠질 수 없는 추억이 되어갔다.

셋째 날(7.29)

진짜!?

혹시 했던 시험이 진짜였다.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갑자기 강의실 안이 술렁이고 긴장감으로 실내가 서늘해진다. 긴장 속에서도 부정행위 없이 한 문제라도 더 풀려고 하는 성의가 돋보이는 가운데 잘 치루어졌다.



뒤이어 요즘 이슈로 떠오르는 교육목장 사업에 대한 이해와 낙농산업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강의를 있었다. 강의를 듣고 보니 앞으로 낙농이 나아가야 할 방안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할 주제라고 여겨졌다.



넷째 날(7.30)

스피드 게임!

어설픈 이해한 회계 용어들을 이 게임을 통해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물론 재미도 있었다.

3박 4일 간의 교육 일정이 수료식과 함께 대단원의 막이 내려 다들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모두들 미적



미적, 몽그적 몽그적 거리는 품들이 못내 아쉬운 표정이다. 또 보자며 서로를 포옹하고 눈물을 글썽이는 이도 있다. 헤어질 땐 짧고 굵게 하자라고 하더니 다들 길고 굵게 하고 있다.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며 그 아쉬움을 기꺼이 받아 들였다.

이번 여성 낙농인 목장 경영 전문화 교육을 마치면서 목장에 가면 이번에 교육한 내용들을 상가히만서 그 동안 흘려버렸던 손익에 관한 정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이 듣게 된 교육목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보여진다. 이런 교육이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밑 작업을 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교육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도와준 남편에게도 무한한 고마움을 느낀다.

아직 우리 낙농은 미래가 보입니다!

여성낙농인 여러분!

아자! 아자! 화이팅! ☺

전문경영인으로 변화시켜줄 기회

최문숙 경기양주 대원목장



여성 교육 전문화 과정 3박4일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날아들, 딸이 몇일 떨어져 있었다고 마중을 나왔다. 아들, 딸이 하는 말 “엄마 무엇을 배우셨나요?” “재미는 있으셨어요?” “유익한 시간 보내셨나요?” 등등....

떨어져 있는 동안 엄마의 빈자리를 느껴졌나보다. 한동안 그리움의 포옹을 끝내고 ... “그래, 대차 대조표라는 거 하고 손익계산서를 배웠는데 아리송 하더라”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 “그게 무엇이 어려워요?”, “대차대조표는 우리 현 재무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고 손익계산서는 말

그대로 흑자경영인지 적자 경영지를 알아보는 현 경영 상태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하기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했다.

그랬더니 2시간이면 어느 정도 개념을 알 수 있다고 하기에 “그래 한번 해봐” 하며, 집에 도착하자마자 펜과 빈 종이를 들고 와 당장 해보자는 것이다. 엄마 우리 땅 중에서 대지는 몇 평이고 공시지가는 얼마며? 목장용지는? 밭은? 논은? 소는? 닭터는? 여러 가지 농기계들은? 우사는? 집은? 현금 자산은? 부채는? 해서 나는 조목조목 말했다. 해보니 우리 목장이 자산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림잡아 얼마라고 나왔다.

또 손익 계산서는 보름 유대니 기간을 15일로 하기로 하였다. 비용얼마? 수익얼마? 해보니 현 상태 유지다. 아들 말 “엄마 현 상태 유지면 적자 아니에요? 부채는 갚을 수 없는 거잖아요? 부채를 갚는 것은 땅 값이 오르는 거 말고는 마땅히 없을 것 같아요.” 하기에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도록 노력하면 손익구조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아무튼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목장 현 재무 상태와 경영 상태를 알고 보니 3박 4일이라는 교육이 참 유익했던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의 목장 경영에 있어서, ‘교육농장’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박사위에 농사“라고 외치시는 박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박사위의 농사“를 만들기 위해 종합예술이라는 낙농을 지켜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 어느 강사님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라며 서로 포옹을 하는 시간은 서로에게 포근하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화합을 이끌어 가는 좋은 말이 구나 새삼 느꼈다.

또 나현채 강사님의 낙농 경영에서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육성우 한 마리를 키우는데 지금 280만원 정도 드는데 소들을 잘 보살펴서 1산이라도 올리면 수익이 더 난다는 말씀에 공감했다.

아쉬웠던 점도 있었다.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같은 낙농을 하는 사람들의 만남이 너무 빠빠한 교육일정 때문에 서로의 목장경험에서 나오는 배울 점과 서로의 애로 사항을 들어가면서 공감하며 화합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목장의 종합적인 경영 분석을 통하여 좀 더 발전적인 목장을 만들 수 있는 방향 설정을 할 수 있었다. ☺

나를 바꾸게 할 3박4일

지 송 임 경기 양주 준이목장



협회가 보내는 소식지에서 여성낙농인 목장경영 전문화교육이 개최될 것이라는 내용을 접했을 때는 내가 찾고 있던 교육! 다급한 맘과 반가운 맘으로 인터넷 접수를 했다. 가족휴가도 포기하면서까지 매일 교육일자를 고대하였고, 마침내 3박4일 교육을 위하여 화성 리비돌 리조트를 찾았다. 낙농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여 일찍 시작되는 교육(아침 7시 ~ 밤 10시 30분)까지의 뻘뻘한 교육 일정을 훑어보며 어깨가 으쓱해졌다. '돌아가면 뿌듯한 무언가를 잔뜩 얻어 가리라!' 라는 확신이 가득찬 채로 말이다. 사실 그동안 궁

금해왔던 회계분야, 꼭 내 스스로 우리 목장 경영분석을 해보고 싶었다. 도착하여 맛난 점심을 먹고 짧은 개강식을 통해 이승호 협회장님의 인사 말씀과 협회 실무담당자의 육우협회의 소개와 낙농정책과 비전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윤세진 강사님의 교육은 신선하고 즐거웠다. 경험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20대의 시행착오와 그분의 성공사례를 예를 들어 낙농 회계와 접목시키려는 의도가 웬지 불편했지만, 회계분야를 이해시키려는 다양한 강의 방법들이 돋보였다. 우린 10대 20대의 한창 공부하는 학생들도 아니고 목장에 대해 전혀 모르신다고 하니 강의에 현실감이 없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배운것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삶의 이야기속 진실들은 참으로 큰 느낌으로 남는다. 정말 재미 있고 유익한 것이 많았는데 적어도 본인에게는 낙농 회계보다는 교양 강좌로 기억되는 시간이었다.



나현채 강사님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와 목장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는 분이요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묻고 싶다. 목장 안주인들이 그 정도의 가르침으로 경영분석을 할수 있겠는가... 좀더 반복적이고 확실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시간상 어쩔수 없었지만 아쉽다.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쫓은 알수 있지만 실제 내 목장 회계실무 결산을 뽑으려면 나는 못할 것 같다.

교육을 마칠 때 더욱 크게 느꼈던 부분은 무엇을 얻으리라 했던 마음에 많이 답답했다. 그렇다고 저녁 8시 이후 인적 네트워크 시간에는 지역 아카데미 연구진이 특정다수인들과의 시간이 었던 것으로..... 같은 직업 또 같은 여성 동질감을 느끼며 삶의 애환과 뒤섞일 시간이 없었다는 것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이야기 하고 들어주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3박이 지나고 모두의 이별을 앞두고 절실히 느끼는 듯 했다.

첫날 푸른초원위에 준비된 바비큐 파티! 처음에는 모두가 서먹했다.

하지만 석양을 조명으로 잘정리된 정원수와 잔디, 시원스레 물을 흘러내리던 작은 분수, 간간이 음악이 퍼져나가던 그 시간, 순간 가족을 잊기로 하고 자유인이 된 느낌! 좋았었다. 아마도 우리들의 서먹함은 특강 시간 반태섭 강사님의 체질테스트와 서로를 껴안으면서 풀어 진것 같다. 교육에 지친 정신을 위로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정운정 강사님의 낙농산업의 교육적 가치와 교육목장이라는 강의는 정말 중요한 정보이고 교육목장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화를 가져 올수 있는 것은 교육 뿐이다. 기대했던 만큼 충분히 익히지 못했지만 전국에 함께 할 낙농 동지들이 생겼으니 그 인맥을 위로 삼는다. 끝으로 교육을 주관하셨던 모든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다 더 나은 교육을 마련하는데 참고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램이다. ☺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권숙자 전북 군산 은하수목장



자동급여가 있으니까 아침, 저녁 소밥 주고 우유만 짜면 된다는 지인의 말만 믿고 시작된 낙농생활도 어느덧 12년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낙농은 그 지인의 말처럼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키운다는 것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어려움도 많았지만 남편은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잘 적응하여 소를 잘 키웠습니다.

하지만 낙농업종이 3D업종이라 힘든 것보다 어이없는 정부의 정책에 더욱더 힘들고 화가 나서 낙농도 좀 더 체계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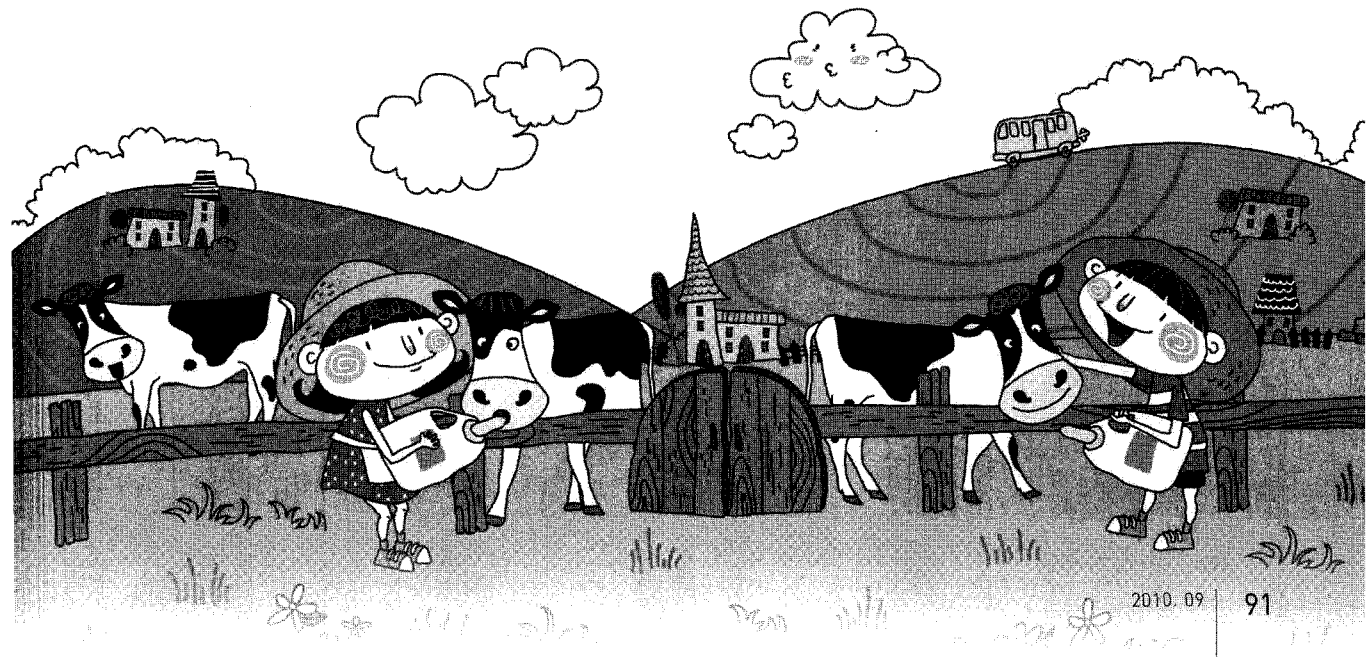
관리와 좀 더 많은 낙농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되어 교육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저는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얻고 왔습니다.

어렵게만 느꼈던 농업회계를 쉽게 설명해주시고 조로 편성되어 직접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육목장을 운영함으로써 소비자, 교육계 등에 낙농과 우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우유소비확대와 농가의 경영 안정성 도모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교육을 담당하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로 낙농가의 자부심 함양, 특히 강사님의 박사위에 농사라는 말씀은 저에겐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신 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낙농 환경 속에서도 곳곳이 열심히 밝게 사는 언니들의 모습은 나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왕언니들의 지지 없이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열정은 꼭 본받고 싶습니다. 여성 낙농인 이라면 한번



좀 꼭 교육에 참가했으면 하는 바람과 회계에 대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모이기 힘든데 서로가 서로를 알아 가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음카페에 “낙농전문화교육 3기”가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보고픈 언니 동생들 많이 방문해서 좀 더 많은 정보 공유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 좋겠습니다. ☺



짧지만 긴 여운을 준 추억

장순덕 경남 함안 호인목장



남편의 권유로 교육에 참가하게 된 것이 약간의 부담이 되어 무언가를 열심히 배워가야한다는 숙제를 안은 학생처럼 교육 장소에 도착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도 보이고 지역행사 때문에 잠깐 잠깐 얼굴만 보아왔던 사람들도 모여 있었다.

낙농육우협회의 소개와 함께 교육이 시작되었다. 개인적으로 이승호 회장 모친이 내 이름과 같다고 하여 건내준 이름표 때문인지 인사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았다. 협회가 우리모든 낙농인들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익히 알고 있었지만 가까이서 직접 들을 수 있어 더욱 신뢰가 갔다. 부디 앞으로 그 인사말처럼 열심히 우리 농가들을 위해 일해주시길 간절히 빌었다.

회계 교육을 맡은 윤세진 강사의 강의가 매우 인상깊었다.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분류하는 것이 힘들어 적다가 말고 기록하다가 말았는데 재미있는 게임으로 쉽게 풀어 나열할 수 있게 해주어서 가볍게 수공할 수 있었다. 윤세진 강사 입장에서는 많은 교육을 받아보지만 우리처럼 농가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가장 힘들었을 텐데 열의를 갖고 가르쳐 주셨다.

나현재 강사의 교육은 진실 그 자체였다.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회계였다. 윤세진 강사의 쉽게 풀어놓은 강의와 사실적으로 연결해 주는 다리역할을 해주었다. 반태섭원장의 강의는 목장 현장에 찌들은 우리의 건강을 스스로 테스트해서 자가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우리의 낙농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게 끝이지 않

나현재 강사의 교육은 진실 그 자체였다.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회계였다. 윤세진 강사의 쉽게 풀어놓은 강의와 사실적으로 연결해 주는 다리역할을 해주었다.

반태섭원장의 강의는 목장 현장에 찌들은 우리의 건강을 스스로 테스트해서 자가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우리의 낙농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게 끝이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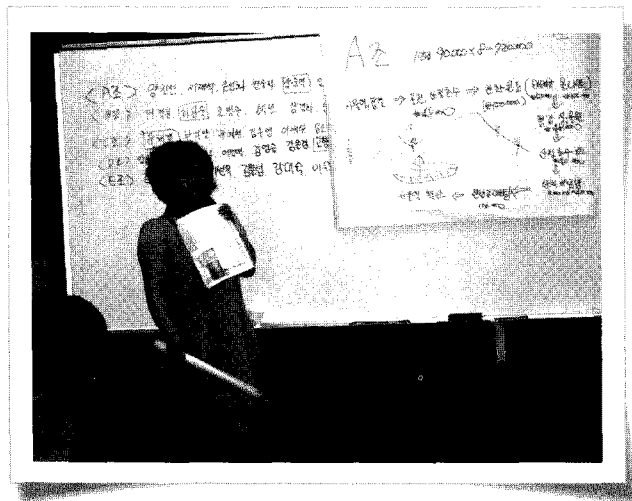


은가! 우리의 몸 역시 잘 다루고 소중히 다루어야 할 제일 큰 재산임을 일깨워주는 시간이었다.

정윤정 교육센터장의 교육은 사실 우리 모두의 꿈이자, 희망이고 바람이었다. 고된 육체의 노동으로 얻어진 유대수입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교육자가 되어 가르치고 보이는 낙농으로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으로 수입을 끌어 들일 수 있다는 낙농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교육이었다.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와 행복이 절로 굴러 들어오는 기분 좋은 뜻깊고 감동적인 강의였다. 남성의 강의보다 더 힘이 넘치고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인상이 참 와닿았다. 같은 여성으로 존경심이 가는 파워였다.

무엇보다 아쉬웠던 건 일하는 것보다 더 고된 교육시간에 초긴장을 해서 갔다 오자마자 며칠동안 몸살을 했다. 모두가 다 그러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세상사는 이야기들로 감동하고 눈물없는 이해하기 힘든 살아온 이야기들을, 평생 털어놓을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나누어 가지고 포용할 수 있었던 새벽강의시간이 제일 기뻐고 가슴을 이해하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모두가 열심히 살아왔기에 인생에 있어 모두가 훌륭한 강사임을 감히 인정한다. 다음에 이런 교육엔 인생철학을 논할 수 있는 인간심리 교육을 꼭 넣어주었음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



다시 찾은 여성낙농인 목장 경영 전문화 교육

위하나 강원 홍천 내목장



태풍 곤파스 북상한다는 소식에 우리 낙농가에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걱정이 무색하게도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지역 곳곳에 전기가 끊기고 도로가 붕괴된 모습을 전해주는 리포터들의 모습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낙농가에 태풍 피해가 없었기를 기도합니다.

2009년 2년여의 직장 생활을 접고 낙농을 하겠다며 강원도 홍천으로 내려와 처음 받게 된 교육이 여성 낙농인 목장 경영 전문화 과정이었습니다. 제1기 여성 낙농인 목장 경영 전문화 과정을 수료 한 후 목장에 대한 많은 정보, 경영에 대한 지식

과 선진 낙농을 배울 수 있었던 유럽연수의 기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동기 교육생 여러분들을 알게 되어서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3기 교육에 대한 기대심은 역시 제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번 3기 여성낙농인 목장 경영 전문화과정 교육은 전문화 된 강사진과 전문 교육내용과 다른 많은 분들을 알게 되리라는 기대에 많은 설레임을 품고서 찾아왔습니다.

실제 교육시간 동안 교육내용에 맞는 전문 강사분들을 초빙해 강의가 진행된 점, 낙농가를 고려한 강의시간 조절로 더 많은 교육생들이 꼭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제1기 교육때보다 더 발전된 교육의 장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조별 진행이 많았는데, 그 점을 고려해서 첫날에 교육생들끼리의 친목을 위해 준비해주신 바비큐파티는 3박4일간의 일정을 더욱 즐겁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조별배치도 각 지역등을 고려해 고루고루 한 조가 되어서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과 서로의 어려움을 알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교육의 내용 중 이번 교육에 새로 오신 경영 컨설팅 전문가 윤세진 강사님은 농업분야 경영관리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번 교육을 계기로 낙농분야 쪽으로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많은 낙농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해 제1, 2기에 이어 올해 3, 4기 교육까지 함께 해주신 나현채 강사님께서도 낙농분야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식으로 교육에 오신 많은 여성 낙농인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고, 역시나 재미나고 유익한 교육을 준비해 주셔서 지루할 틈이 없이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통해 얻게 된 과학적인 사양 관리, 자신의 목장에 대한 정보, 목장 경영에 대한 지식들은 현 낙농가가 한걸음 더 나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지식이라고 생각하며, 전국에 많은 여성 낙농경영인들과 함께 교육을 받으며 서로를 알게 되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이번 교육과 교육생들과의 인적교류를 통해, 저와 같이 낙농에 꿈을 갖고 있는 후계자나, 혹은 낙농후계자들과 결혼한 젊은 예비 여성 낙농인들이 낙농이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낙농업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앞으로 계속해서 목장을 경영함에 있어서 전문 경영 지식을 가지고 경영의 안정화를 바탕으로 한 교육농장, 체험 목장 그리고 목장형유가공까지 낙농이 1차 산업에 그치지 않고, 2차 3차 산업을 함께 해서 소비자에게 낙농업의 필요성, 중요성, 우리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낙농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

기대이상 큰 수확을 안겨준 교육

김춘자 경기 파주 흥표목장



낙농자조금 소식지에 여성낙농인 전문화 교육이 안내되고 있는 것을 보고, 옆 목장 언니에게 “언니! 여성낙농교육이 있는데 갑시다”, “언니 안가면 난 못가요, 언니가 결정해요” 하며 재촉을 하니 언니는 흥케이 “그래! 가자” 해서 교육을 받으려 갈 수 있게 되었다.

열심히 배워서 우리목장에 적용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대반 걱정반!!!

송아지 우유와 육성우 담당은 내가 해야 하기에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일하고 언니네로 가서 일찍 출발을 하니 교육장으로 가는 도중 길을 헤매어도 11시에 도착하였다.

이번 교육은 목장회계를 비롯해 목장 분석, 리스크관리, 교육목장의 필요성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농가 경영관리와 역량과 전문지식을 목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위주로 교육이 진행 되어서 모두들 열심히 참여 하였다.

“이야기가 있는 쉬운 농업회계” 라는 제목으로 열강하여주신 강사님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끔 포괄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장인(匠人)과 장사(商人(상인))의 차이점을 알자”는 주문에 깊은 인상을 가졌다.

회계에서 우리네 가정의 예산 지출과 농장의 예산 지출을 분리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주머니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출액 증대를 위해서는 생산량의 증가와 단가 상승이 이뤄져야 하며, 생산량의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냉정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고 매출액 증대를 위해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력투입대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경영요소로서 회계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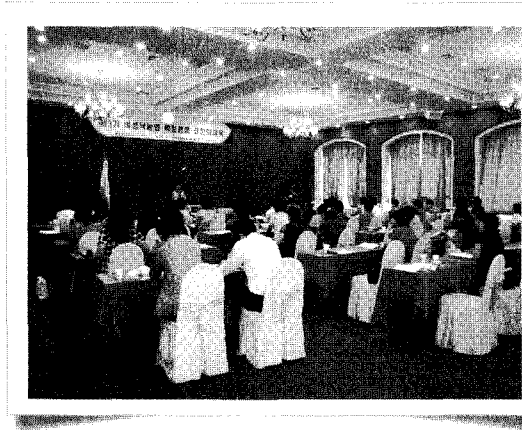
‘회계에서 대차대조표, 자산, 자본, 부채, 손익계산서... 단어는 알아도 그 뜻은 정확하게 알지 못 했는데 이제는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하고, 우리목장에서는 가계부(수입, 지출만)쓰는 형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었구나!’ 하며...

사실 목장에서 막연히 이익이 나지않아 ‘이거 낙농을 계속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가 들때가 있었지만 이번 여성낙농인 목장경영전문화 교육을 받음으로서 나의 잘못된 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즉 공짜로 먹는 소(육성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소가 태어나서 초산이 될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270만~300만원이나 들어 간다고 하니 정말 적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알고 있었지만 젖소개량을 했는데, 좋은 종자인데, 아까워서 등 등 등... 처분하지 못하고 있었던 미련 때문에 그동안 우리 목장은 이익이 없이 일만 해왔었다.

분명 이번 교육은 나의 목장 경영 상태를 점검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농장 운영 과정에서 잘못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는 우리 목장의 경영을 짜임새 있게 관리하는 대책을 찾아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할 것이며, 일단은 가정의 예산 지출과 농장의 예산지출을 분리하여 계획을 세워야 하고, 공짜로 먹고 있는 육성우의 수를 줄여 새는 돈을 막아야겠다. 낙농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는 직업이지만 보람과 기쁨이 넘치는 나의 일터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여성낙농인 목장경영 전문화교육은 나에게 이익을 창출하여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바라 볼수 있는 낙농인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교육이었다.



강사님의 말씀은 직업을 선택할 때
 첫째로 내가 좋아하는 것
 둘째로 내가 잘 할수 있는것
 셋째로 나에게 수입이 있는것
 넷째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것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본래 나에게 낙농은 처음에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경영개선에 따른 노력
 으로 수입도 늘고 또한 좋아 하는 직업, 즉 만족 하는 직업으로 되어 갈 것이다. 또
 한 국민 식량보급 차원에서 우유를 만들어 내는 것이니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 아
 닌가!

마음만 바뀌니 낙농은 행복한 직업으로 바뀐다.

나 자신의 생활이 행복과 희망이라는 단어로 내게 오는 것 아닌가!!!



3박 4일이 금새 지나
 갔다.

목장을 하고 있는 사
 람들끼리 모이니 똑같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았
 으며, 혼자만의 일이 아
 니라 모든 낙농가들의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신하늘 목장을 견학하고
 아이스크림과 치즈 체험
 을 하였으며 이정희 위원
 장이 체험 농장을 열심히
 잘 운영하고 있었다.

나도 우유에 대한 지식
 을 많이 배워 남에게 도
 움을 줄 수 있는 낙농가
 가 되어야겠다. 이번 교
 육으로 참 많은 것을 배
 울수 있었으며 실천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친해질수록 삶을 윤택하게 하는 회계

윤 세 진 이지금융연구소 책임연구원



“여러분은 ‘회계’라고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 질문은 제가 농업 회계 강의를 할 때 매번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나온 답변들을 살펴보면,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어렵고... 머리 아프고... 피곤해서... 라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회계 교육시간에 졸음을 어떻게 참고 보낼 것인가라며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부터 하십니다.

회계는 어렵고 힘들고 재미 없는 것, 그러나 해야만 하는 것. 이 선입견은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원초적으로 떠 안고 가야 할 원죄(?)와 같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회계학을 전공하거나 회계업무를 직업적으로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 강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다 이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제가 하는 농업회계 강의의 내용입니다.”

본인은 개인재무설계사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가정의 재무구조를 분석해서 좀 더 돈이 모이는 구조로 바꾸어 주는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분들께서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가서 조언을 하겠지만 제 친구나 제 가족들은 재테크를 하려 해도 펀드하나, 보험하나 어디 마땅히 물어볼 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고, 저의 재주가 가장 필요로 할 곳을 찾다보니 농업쪽에 재테크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민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지

식은 농업인에게는 맞지 않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가정 경제 구조의 분석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입도 일정치 않고 또 지출도 애들 학원비나 사료값이나 모두 한 주머니에서 지출되다 보니 가정의 재테크를 위해 어떤 것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부채가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그 구조를 파악하기도 너무 어려워 하셨습니다.

농가들에게는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보다 먼저 자신의 경제구조를 아는 것이 먼저겠구나 싶은 생각에 그때부터 농업가정의 경제구조에 대해 조사하고 찾아보다 보니 이 자리까지 서 있게 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 왜 회계를 어려워 하는가?”

우선 앞서 말씀 드린대로 회계라고 하면,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시면서 하기 어려워 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저 역시도 경영학을 배우면서 가장 힘들어 한 과목이 회계학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반대로 내가 왜 회계학을 그렇게 힘들어 했는가 하는 질문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당시 회계학이 어려웠던 이유는, 첫째는 내 생활에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둘째는 용어와 개념이 너무 어려워서 어렵게 느껴졌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함으로 인해 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몸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에선 이 세 가지를 좀 더 쉽게 느끼게 해 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도한 것이 회계는 특별한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일상 생활 속에서 누구나 하고 있던 일상활동이란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회계는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일상 활동이다.”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교재를 치워 버리는 것입니다. 회계라는 말이 어렵고 복잡하단 선입견이 있는 이유는 왜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 못하면서 막연히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앞서서 이유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회계 용어들과 개념을 접하면서 어렵고 복잡하다는 선입견이 생기는 것이라 생각 했습니다. 회계는 지식이 아니라, 왜 필요한가에 대한 공감이 먼저 전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교재를 덮어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책상 속이나 뒤로 넘겨 버려 절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제 시간은 지식은 별로 없으니 그저 신나게 놀다 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공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열심히 적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최대한 줄이고 맘 편히 느끼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 고자 했습니다.

회계가 왜 필요한가?

회계가 왜 필요한가 하는 필요성을 공감하게 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한 것은 교육생들에게 조를 나누게 하고 조별로 가상의 여행을 떠나는 것을 과제로 부여했습니다. 1박 2일의 여행을 떠날 때 여행과정과 준비해야 할 것들을 서로의 토론을 통해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회계 강의를 한다면서 갑자기 여행 계획을 짜라는 것에 처음엔 좀 당황해 하시는 것 같더니, 이내 즐겁게 여행 계획을 짜고 계셨습니다. 특히 이번 여성낙농인목장 경영전문화교육이 3차라고 하시는데 재미있고 유쾌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분위기는 왁자지껄 너무 즐거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산출해서 총 여행경비와 개인별 비용을 산출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조별로 각자의 여행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여행을 떠날 듯 정말 유쾌하고 즐겁게 여행계획들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렇게 발표가 다 끝나고 나서 회계 강의를 한다면서 왜 1박 2일 여행을 가는 계획을 세우는 게임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게임을 하면서 한 가지 오해를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비를 적게 쓰라는 의미에서 이 게임을 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행은 크게 4가지 경우로 구분 될 수 있는데, 돈 많이 들여서 럭셔리한 여행을 한 경우는 그냥 당연한 결과겠지요, 두 번째는 돈 적게 들여서 소박한 여행을 다녀 온 것도 억울할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억울한 경우는 돈은 돈대로 다 썼는데 여행이 즐겁지 않을 경우일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경우는 돈은 적게 들었는데 여행은 재미있는 경우겠지요. 이것이 경영이 아닐까요? 또 여기서 회계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목적은 돈을 아끼는 행위가 아니라기보다 같은 돈이라도 효과를 크게 얻도록

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미리 계획한다면 즉흥적으로 여행을 갈 때보다 콘도를 미리 예약해서 할인을 받고 일정을 짜임새 있게 진행해서 불필요한 경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산은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같은 비용을 훨씬 크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여행을 가고자 한다면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을 적고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겠죠. 이러한 행동들의 목적은 즐거운 여행이 성공적으로 마칠길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계라는 것이 특별한 학문이고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목장일을 매일 하면서 한번쯤 고민해 봤던 그저 일상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었던 일을 좀 더 체계적이고 보기 좋게 정리하게 해 주는 것이 회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계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닌 생활 속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던 것으로 써 회계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하는 것을 그 첫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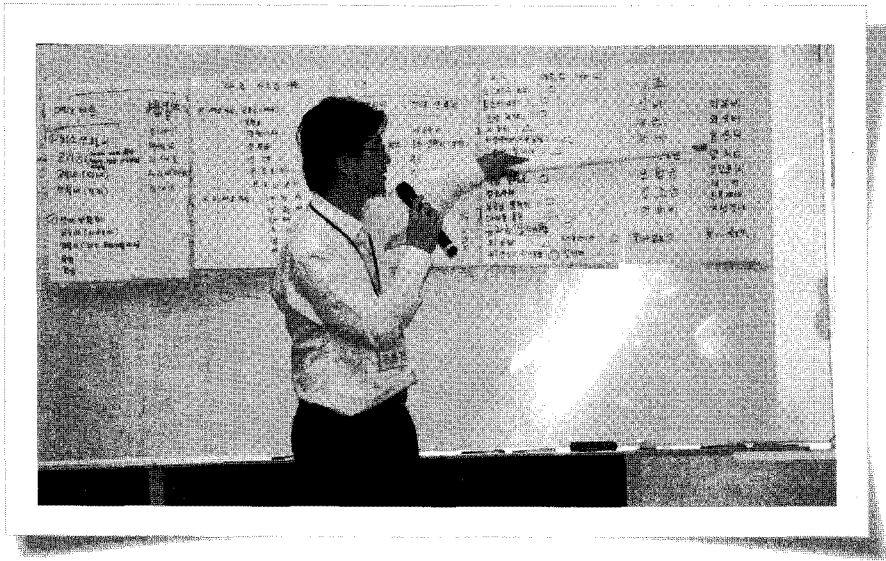
수업은 이렇듯 회계교육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을 위해 모든 수업이 강의식이 아닌 토론식, 발표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지식은 때론 그 강의장을 나가면서 바로 잊혀지곤 합니다. 그러나 몸소 느끼고 공감한 느낌은 좀 더 오래 마음속에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3기 교육생분들은 재미를 붙이셨는지 더욱 더 열심히 참여를 하시며 때론 경쟁을, 때론 유쾌한 위트와 재미로 그 어렵다는 회계 교육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업회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조금씩 접근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업경영에 있어서 회계라는 것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들을 나열해 보면,

- 1) 금전거래 기록의 부재
- 2) 가정경제와 농업경제의 구분 부족
- 3) 품목의 다양성과 농업특성으로 인한 회계의 표준부재

첫 번째로 회계에 있어 가장 기본인 금전거래의 기록부재에 대해 교육생들의 입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한 토론과 대안에 대해 이야기 했고, 둘째로 가정경제와 농업경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목장경영활동에 대한 효율성 등을 바탕으로 한 원



가 산출 자체에 무리가 있음을 공감하며 가정경제 비용부터 구분하는 실습과 토론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농업 특성상 기업 회계를 사용할 수 없는 특수성에 대해 이해하고 그 대안으로 자신만의 경영성과에 대한 측정 방법들에 대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토론식 수업은 마땅히 쉬는 시간을 드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쉬시게 했지만, 어느 교육생도 결코 자리를 비우지 않고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나중에 진행자께서 강제로 휴식 시간을 갖게 할 정도로 열정적이셨습니다.

이번 회계교육을 통해 기대했던 점과 가슴 한 켠 뭉클하게 했던 감동의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우선 이번 교육에서 제가 바라던 것은 단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무리 3박 4일의 교육을 한다고 해도 이 시간동안 많은 지식을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많은 지식을 습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하는 '자기 발견'이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재테크를 공부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터넷부터 전문가까지 물어보면 답해 줄 곳은 많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쉬운 방법인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강의 내내 가장 강조한 말입니다. 회계를 배우시려는 것보다 경영을 하시면서 내가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을 갖으시는게 더 중요할 듯 싶습니다. 회계라는 학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영자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좀 더 과학적인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회계라는 개념을 꼭 심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목장을 경영하면서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가를 먼저 자각하신다면 그 다음은 그 필요성에 방법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목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분명 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자이십니다. 보통 일반 기업에선 CEO라고 부르지요. CEO에게 있어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수 많은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겠죠. 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회계입니다.

교육을 마무리 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교육보다도 내가 경영자로서 지금껏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가를 고민해 보고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앞으로 회계를 어떻게 활용하시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에 어떤 분은 목장경영과 가정경제를 분리하겠다는 말씀부터 현재 자신의 자산과 부채를 한번 정리하겠다는 말씀 등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분의 말씀이 저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지난번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자식처럼 아끼던 소들을 살처분하고 다시 용기를 내 일어서고 계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보상처리에 있어 젓소를 일반 고기소와 같이 취급하는 것을 보고 막연히 억울하다는 감정이 아닌, 정확히 경제적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이제부터 만들어 보겠노라 말씀하시는데 그 결연한 말씀에 가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회계라는 것이 멀고 어려운 학문이 아닌 좁게는 가정경제에서부터 넓게는 목장경영에 이르기까지 피할 수도 없고, 또 꼭 활용해야 할 가장 가까운 존재로서 내 일상의 생활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교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의 피교육생이 아닌 자신의 현재 상황과 경험을 서로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스승이자 동료라는 그 느낌을 나눠 주신 것이 이 교육을 가장 행복하게 해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사로서 앞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제게 목장경영이라는 더 많은 가르침을 주신 이번 여성낙농인목장경영전문화 3기 교육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㉞